

■ 바다 불청객 ‘괘쟁이모자반’ 덮친 삼양해수욕장 가보니...

10여t 해변 초토화... 수거작업 ‘총력전’

해양지킴이 “지난주 갑자기 모자반 몰려와” 장비·인력부족 하소연 도 전역에서 250t 수거



2일 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양지킴이들이 괘쟁이모자반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현석기자

2일 오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는 해양지킴이 20여명이 괘쟁이모자반 수거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지난달 26일 해안가로 올라온 10t 가량의 괘쟁이모자반이 해수욕장 일대를 뒤덮었기 때문이다. 해양지킴이들은 괘쟁이모자반을 마대자루에 담고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느라 분주했다.

이날 해양지킴이 김모(65)씨는 “지난주 갑자기 상당한 양의 괘쟁이모자반이 몰려왔다”며 “장비까지 동원해 겨우 끌어올렸지만 추가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양동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지난달 괘쟁이모자반이 해안가로 몰려와 포클레인과 해양지킴이들이 모자반을 끌어올려 말리는 작업을 했다”며 “날씨가 안좋아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번 주 내로 수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제주 동쪽 해역에서 직경 1~5m 크기의 괘쟁이모자반 덩어리가 1ha당 약 10개체가 처음 발견됐으며 이날까지 제주 해안가에서 수거한 괘쟁이모자반은 250여t에 이른다.

2017년에는 4418t, 2018년 2938t의 괘쟁이모자반을 수거했다.

해조류의 일종인 괘쟁이모자반은 겨울철이 주 성장 시기이며 띠 형태로 해류를 따라 이동한다. 괘쟁이모자반은 어선 스크류에 걸려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거나 그물이나 양식장 시설 등에 걸려 시설물을 파손함으로써 양식물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패한 괘쟁이모자반의 악취로 인해 청정제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관군을 투입해 괘쟁이모자반 수거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거된 괘쟁이모자반은 소각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거된 괘쟁이모자반을 사료로 쓰고자 하는 농가를 신청받고 있지만 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3일 금요일 음 3월 29일 (6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주	0%
0%	성산	0%
0%	고산	0%
0%	서귀포	0%

주간예보

내일	맑음	15/23℃
모레	맑음	15/22℃

맑음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 낮 최고기온은 21~24℃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해돋이 05:44	달맞이 04:58
해질미 19:18	달지기 17:37
물때	간조 04:06
	22:16
	16:17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스승의 날 앞둔 6일 교육가족 음악축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 (이하 제주교총)는 오는 6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19 교육가족 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제주교총은 기존 스승의 날 기념식과 교육공로자 표창 시상식이 일부 행사와 중복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념식 대신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음악축제와 '탐라스승상 및 교육공로자 시상식'을 열고 있다.

이날 축제에서는 사룟곡과 하날오름, 소리그림 기타동아리, 파하마색 소폰앙상블,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클라미피에 클라리넷동아리, 정소리 대금동아리, 취선악 대평소 브라스 밴드, 제주교원오케스트라, 제주제일고 관악부, 폭풍전야 조동교사밴드 등 10개 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 소프라노 강혜명과 김한돌의 특별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축제 중간 제17회 탐라스승상과 교총 교육공로자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 탐라스승상 수상자는 김미영 교사(동북분교유치원), 채유희 교사(남광초), 양성호 교수(제주대), 송미숙 교사(세화고)가 선정됐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부연 먼지와 파란 하늘 2일 오전 미세먼지농도가 매우나쁨을 보인 가운데 제주시 한라수목원 정상에서 바라본 시가지가 부연 미세먼지피위에 파란하늘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희만기자

자치경찰단, 수학여행버스 운전사 음주측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사전 음주 감지(측정)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일환인 이번

활동은 수학여행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의 음주 감지 활동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도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35개교·

5733대, 2018년 663개교·4729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지난 달까지 총 73개교·478대에 대해 음주감지를 전개했다.

최근 자치경찰단은 학교나 여행사 측에 자체 음주감지기를 갖고 모든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음주감지를 실시하도록 전국 각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si@ihalla.com

중국 인센티브 관광시장 회복하나

6월 1500여명 제주 방문... 올해만 6건 유치

침체됐던 중국 인센티브 관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말 기준 중국 익성한삼 코스메틱을 비롯한 중국 인센티브 관광 6건을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중국 인센티브투어 유치실적을 보면 2016년 20건에서 2017년 사드사태가 촉발되면서 2건으로 대폭 하락했다.

뒤이어 지난해 5건을 유치해 전년보다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가,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총 6건을 유치하면서 중국 인센티브 관광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들의 인센티브 관광 요청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유치 실적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제주도에 따르면 익성한삼 코스메틱은 오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간 제주에서 관광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인원은 1500여명이다. 익성제약그룹의 자회사로 중국 길림 집안시에 본사를 두고 북경 행정본부 중심으로 중국내 12곳

에 지사를 두고 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주력제품이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는 중국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지역 MICE 전문 박람회 제주 독립부스 운영, 중화권 MICE 로드쇼 참가 등 중국시장을 지속 관리·공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전처럼 중국 기업들이 즐겨찾는 MICE 목적지가 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창간 30 since 1989 주년

제주도민과 함께한 30년

제주도민과 함께할 100년

차원 높은 정보와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하며
제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지난 30년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며
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줄 바입니다.

뜻 깊은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온 제주도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2019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성숙

부위원장 김장환 이선화 간사 신승훈
위원 강민숙 고광연 고영호 고종철 김기형 김영훈 김은미 김정일 김정학 문경운 문만석 박순정 박애순 변대근 부석현 오명찬 이소택 이양선 이정연 이정훈 홍인숙 홍진숙